

광주 은 김정길 前 행정자치부 장관 인터뷰

“민주당, 전국 정당 되려면 지도부 변해야”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석패했지만 44.6%라는 '혁명적' 득표율로 지역구도의 벽을 깨며 민주당 바람을 일으킨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22일 광주를 찾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국정당이 되려면 민주당 지도부가 기득권에 연연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시장 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지역주의라는 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만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선거에서 떨어졌는데도 위로보다 축하를 더 많이 받지 않나.



지역주의 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선거 전 내심 득표율이 40% 넘었으면 했는데 참 의미있는 표를 얻었다.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남자가 됐다.

-광주·전남도 지역주의가 강하지 않은가.

▲영남지역과 광주·전남의 지역주의는 다르다. 영남은 수십년간 소외받고 탄압받았지만 영남은 다르지 않은가.

-부산·경남의 민주당에 대한 시각은 여전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찍어줄텐데, 민주당 소속이라 투표장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찍고 싶지 않다는 심리는 남아있는 것 같다.

민주당을 ‘전라도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야 5당 단일 후보와 민주당 후보 김정길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민주당 간판 달 때가 더 낮았다.

-정치권에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하는 이들도 있다. 당에서 영남에서의 역할을 주문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부산지역에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는.

▲지도부가 판단을 잘해야 한다. 당이 달라져야 한다. 전국 정당이라는 큰 숲을 보며 ‘지역당’ 인식을 전환시켜

부산시장 선거 44.6% 득표

견고한 지역주의 균열 확인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2012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전국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도부가 호남 일색이다. 당 대표도, 최고위원도 호남 출신이 많다. 당직자도, 영남과 비호남 출신이 섞이고 당 대표도 영·호남 공동대표제를 검토해봐야 한다. 기득권에 연연하면 안된다. 지난 1990년 3당 합당 이후 통합민주당이 김대중(호남), 이기택(영남) 공동 대표제를 도입한 적도 있다.

-향후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2012년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우선 소속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돼야 한다. 그래야 재집권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당분간 영남에서 개발보다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사람 중심의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득권 연연 땀 결국 ‘전라도당’

영·호남 공동대표제 검토 필요

▲지난 20년동안 모두 6차례의 선거에 나가 모두 떨어졌지만 이번처럼 축하를 많이 받은 적도 없다. 오죽했으면 부산지역 언론에서도 ‘행사 내내 김정길’연호가 이어지는 열띤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보도했겠는가.

-기분이 어땠나.

▲당선과 낙선을 천당과 지옥으로 본다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인데 지지해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만나는 부산 시민들도 축하해주더라. 속으로는 울고 싶은 심정인데 말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역대 야당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진 건 아니다. 현 정부에 대한 부산시민의 경교가 반영했다는 의미가 강하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이제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이번 선거를 평가한다면.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선거를 보면서 영남지역에서

■김정길 前 행정자치부 장관은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내 PK(부산·경남) 세 확산의 대표 주자로, 영남권 맹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시장에 출마, 44.6%의 득표율을 올려 PK지역 야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김 전 장관의 득표율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의 야권 후보 역대 최고 득표율(37.7%)을 뛰어넘는 기록으로, 선거 한 달 전 출마를 결정했고 당내 경

‘3당 합당 거부’ 민주당내 영남 대표주자

선을 치르느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시기가 짧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값진 결과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3당 합당에 반대해 야당 생활을 함께 하는 등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라는 장점도 선거 결과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에서 12·1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합류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거부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엔 행정부 장관·정무수석, 대한체육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친구 노무현이 못다 이룬 지역통합의 꿈(부산시장과 총선 낙선)을 제 손으로 이루겠다”며 출마, 선전함으로써 민주당의 PK지역 세 확대를 위한 ‘동진정책’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2일 김포공항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이금주 태양양전정희생자유족회 광주유족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등이 일본 항의 방면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하라”

피해 할머니 등 시민모임 20여명 日 항의방문

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와 가족 등이 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3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 서한을 들고 22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항의방문단 20여명은 이날 출국에 앞서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한국인에게 지급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한화 1250원)은 13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야 했던 피해 할머니들에게 인간적 능욕자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는 위무성이 보관하고 있는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일본은행에 보관 중인 일제 징용 노부자들의 공탁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연말 ‘99엔 파문’으로 운동이 확산되면서 9개월만에 13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번 방문단에는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82) 할머니, 태양양전정희생자유족회 광주유족회 이금주(91) 회장, 이용삼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김선호 광주시교육의원 당선자, 서정성 광주시의원 당선자, 이상갑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김재학 신부 등 20여명이 포함됐다.

3박4일간 일본에 머물 예정인 방문단은 항의 서한과 함께 민주당 이용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며 서명한 서명부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에 전달하고, 24일에는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미쓰비시 본사와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선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토부 ‘남극 제2기지’ 명칭 ‘장보고과학기지’ 확정

국토해양부는 세종과학기지에 이어 남극 대륙에 새롭게 건설할 제2기지의 명칭으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남극 대륙기지 건설 후보지를 확정된 뒤 공모한 2410개의 명칭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세기 해상무역의 선구자인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과 선구자적 정신을 담은 ‘장보고기지’로 최종 결정했다.

장보고기지는 2014년까지 동남극 로스해(Ross Sea)에 접한 테라노바베이(Terra Nova Bay)에 2014년까지 건축물 연면적 4천232㎡ 규모의 친환경 기지로 건설된다. /연합뉴스

“北, 아프리카 공사로 약 2천여억 벌어들여”

북한이 200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 공사를 수주해 최소 1억6000만달러(1896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22일 전했다.

데일리NK는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만수대해의개발회사그룹’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통령궁과 대형 조형물 등을 건설해 최소 1억6000만달러의 수입을 올려 외화벌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수대해의개발회사그룹은 평양의 개선문과 주체사상탑 등을 만든 북한의 미술 창작단체 만수대창작사가 해외활동을 위해 만든 회사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section for 'Bipin' (법원 경매부동산의 딱지 광고) featur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nd legal notices.